

농산촌 체험마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 보은군을 중심으로-

A Field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Rural and Mountain Experience Village

-With Focus on Boeun-gun, Chungbuk-

박 헌 춘*

Park, Heon-C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residents, experts, and administrators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experience villages by investigating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rural and mountain experience villages that have currently been promoted as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experience village, each of the residents, experts and administrators who are the principal agents for cultivating the village should perform their role appropriately and build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The residents should have a sense of ownership and form a sense of solidarity by organizing communal consultation system. The experts should be able to present feasible project plans. The administrators need to have posture of understanding from the viewpoint of residents.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able experience villages, ecological, cultural, and social values should be conveyed preferentially, and through this, the living spaces like farm villages should be formed.

키워드 : 농산촌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실태, 도농교류

Keywords : Rural and Mountain Experience Village, Experience Program, Operational Realities, Urban and Rural Interchan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1958년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마을가꾸기·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부처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는 지역의 특성, 주민복지, 소득증대를 고려한 지역종합개발과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지역개발을 추구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환경을 개선

하고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마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을 살펴보면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여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향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1999년 신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된 후 2000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었다. 이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004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7년부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를 늘리는 성과위주로 진행된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여 극복하기보다 사업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는 실망을, 마을에는 경관의 훼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 주도의 지역개발에 익숙해진 농산촌의 주민들

* 정희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1) 박헌춘, 농촌경관과 지역성을 고려한 마을 계획, 충북대 석사논문, 2008. 12, p.23

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을 활발하게 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시설물 관리 및 체험마을 운영 등에 대한 부담으로 남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과 풍토에 대한 소중함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렴되는 주민의견은 농촌다움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정부지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산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현재의 마을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산촌 체험마을을 위해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2010년 4월 현재 정부 사업을 유치하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촌 13곳의 마을을 대상²⁾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조사³⁾는 1차 2009.3.2-12.31, 2차 2010.1.2-5.31까지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은군에 위치한 농산촌 체험마을의 현장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각 체험마을의 운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체험마을의 대표 및 사무장,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체험마을의 운영 및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보은군 농산촌 체험마을의 운영실태를 정리하였고, 향후 보은군 체험마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마을의 운영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행정이 등 관련자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사실적인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민들과 마을리더의 의지를 통해 향후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2. 보은군의 특성과 체험마을 현황

2.1 보은군의 지역특성

보은군은 동쪽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서쪽으로 충청북

도 청원군, 남쪽으로 충청북도 옥천군·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충청북도의 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양대산맥으로 둘러싸여 커다란 분지형상을 취하고 있다. 토지의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84.26km²의 69%(403.4km²)가 임야이고, 답이 10.7%(62.5km²), 전이 8.9%(52.2km²), 하천이 2.2%(12.6km²), 도로가 2.0%(11.6km²), 기타 7.2%(42km²)로 구성되어 있다. 보은군의 지역적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의 일부가 속리산국립공원과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군 전체의 인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3만5천명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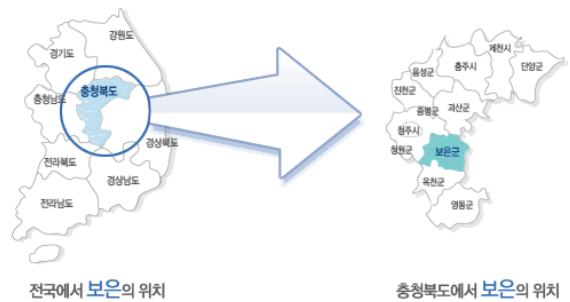


그림 1. 보은군의 위치

2007년 11월에 개통한 청원상주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고, 회인IC, 보은IC, 속리산IC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보은군의 대표축제로는 매년 10월에 탄부면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황토대추축제로 2009년 제3회 축제에만 1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3일의 축제기간동안 10억 여 원의 현장매출 기록을 달성하였다.⁵⁾

2.2 체험마을 분포 및 현황

보은군에는 <그림 2>와 같이 회인면, 회남면,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보은읍에 총 13개의 체험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앞서 연구의 범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이다.

회인면 부수리, 산외면 산대리, 대원리, 보은읍 종곡리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이처럼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각종 법적 규제에 의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자연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보은군의 지역특성은 보은군 홈페이지 <http://www.boeun.go.kr>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5) <http://www.tourboeun.go.kr>에서 발췌하여 정리

2) 대상지는 행정리로 구분하면 9개의 리가 중심이 된다. 본 논문에 표기한 12곳의 마을은 정부사업 유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개 리에서 2개의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 2개의 마을로 구분하였다.
3) 이 논문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보은군 체험마을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은군 체험마을 협의회 및 사무장 협의회의 회의와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관찰하고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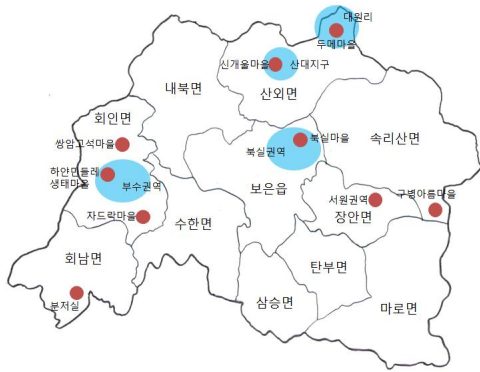


그림 2. 보은군 체험마을 분포도

보은군에서 상향식의 정부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속리산면 구병리로 속리산 국립공원의 구병산 자원을 활용하여 2001년 구병아름마을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듬해인 2002년에 회인면에 위치한 쌍암리·고석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003년 회남면 분저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쌍암·고석에서 2002년에 시행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원년에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약 3년간 추가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으며, 2007년 건천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서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대원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부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2008년 중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대원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산대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09년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0년 복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3. 체험마을의 운영실태 분석

3.1 정부 시행사업의 목적

보은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중단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행사업의 종류와 목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부 시행사업의 목적

종류	목적
녹색농촌체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적인 마을 정비의 개념을 도입 농촌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활성화를 추구

6) 박헌춘, 농촌경관과 지역성을 고려한 마을 계획, 충북대 석사논문, 2008. 12, pp.18-23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의 발굴을 통해 농촌의 관광수요 증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및 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농촌마을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확충, 농촌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함
산촌생태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 교통 편의시설 개선, 산림·휴양자원 활용, 주거환경 향상
아름마을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잠재력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마을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농촌관광정책을 도입하여 주민소득원 개발 및 여메니티 향상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의 편의시설 확충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은군에서 2000년 이후 추진한 정부 시행사업은 친환경적인 마을 정비, 농촌 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수요의 증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증대 등 다양한 목표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 중심의 물리적 정비 위주 사업이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계획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시행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의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3.2 체험마을의 운영실태 분석

농산촌 체험마을의 운영실태는 기본적으로 체험관, 도농교류센터, 방문자센터 등 하드웨어의 구축현황과 주민참여에 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홈페이지 운영과 활성화 현황, 홍보·마케팅 전략, 전반적인 체험마을의 운영·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하드웨어 구축현황

체험마을에서는 대부분 사업비를 통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험관(교육관, 방문자센터 등 마을별로 차별화된 명칭 부여)을 구축하였으며, 그 외에 마을의 담장정비, 마을 내 소규모 공원조성, 생태주차장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2억으로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대원리 두메마을, 부수리 하안민들레생태마을 등은 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험관을 구축함에 있어 목재, 황토벽돌, 기와 등의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체험관의 용도는 체험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영상장비는 모든 마을에서 갖추고 있었

으며, 펜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객실을 구분한 곳도 있었다.

(2)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보은군 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험마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체험마을의 운영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많은 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역량이 고려된 체험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은군에서는 구병아름마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사무장과 지역주민의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했으며, 이것은 체험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마을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체험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3) 홈페이지 운영현황

체험마을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북실권역과 하안민들레권역은 아직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이며, 서원권역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쌍암·고석마을은 사실상 체험마을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종곡리 북실마을은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아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며, 대원리 여동골·두메마을은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스스로 폐쇄하였고, 카페의 운영도 중단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구성은 마을소개, 체험프로그램안내, 지역농산물판매장터, 체험 및 숙소예약, 주변관광안내, 사랑방 등으로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만 마을의 특성에 따라 게시판의 이름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 2>와 같이 도농교류 성과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 최근 3개월 동안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평가해 보면, 구병아름마을이 각종 예약 및 농산물 온라인 주문·판매, 최근 사진 업로드 및 게시판 이용 현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마을이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고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서원권역의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홈페이지를 예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 홈페이지 운영현황 평가표

항목	점수	평가		
		상	중	하
각종 예약 현황	1	구병아름마을	신개울마을	분저실 자드락마을 하안민들레마을
농산물 온라인 주문·판매	1			
최근 사진(자료) 업로드	1			
게시판 이용 현황	1			
이용자 참여 현황 (댓글 등)	1			

* 평가 : 5점-상 / 3~4점-중 / 0~2점-하

홈페이지 관리의 경우 전문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관리에 차이가 매우 컸으며, 단순한 사진 업로드 및 예약업무는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농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의 사무장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최근 체험마을 활성화에 온라인의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홈페이지를 통한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정보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홍보·마케팅 전략

보은군은 군에서 보은군 전체 체험마을 현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마을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마을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지역 언론에 알려 마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계절별 체험프로그램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인근 학교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는 DM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마을의 특산물 판매를 위해 출향인 및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체험마을의 홍보전략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그러나 마케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홍보 전략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나 마을행사의 정기적 운영으로 방문객 및 체험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행사가 1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표 3. 보은군 체험마을 운영실태

행정명	마을명 (사업신청시)	시행사업 · 별입설립	주관부서	선정 년도	사업비	사무장	하드웨어 구축		체험프로그램 구성		홈페이지 구축	
							공간구성	구축된 하드웨어	체험프로그램 현황	실제 운영프로그램	구축 홈페이지	게시판 구성
보은읍	중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8	2억	x	방 거실 주방 황토점질방	 전통가옥체험관	• 전통음식 만들기, 물놀이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농산물 파종 및 수확체험, 매추쭈기, 장 담그기 등	• 농산물 수확체험, 물놀이 체험	페쇄 (도메인 연장 안함)	
		농촌마을 종합개발 · x	농식품부	2010	50억	x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중					
산외면	대원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7	2억	o	방(단위객실) 주방/식당 영상회의실 사무실 체험실	 산촌생태체험관	• 가재잡기, 고로쇠 수액채취, 집단산 등산, 만년불이 관찰, 전통음식 만들기, 산나물 채취, 야생화 관찰, 별자리 관찰 등	• 농산물 파종 및 수확체험, 집단산 등산	홈페이지 페쇄 카페 운영 중단	
		산촌생태 마을조성 · x	산림청	2008	12억	x	방문자센터 건축 중					
	신개울 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7	2억	o	방(단위객실) 영상회의실 주방/식당 채력단련실	 녹색농촌체험관	• 사과 따기, 사과 나무 분양, 짚공예 색, 물놀이 등	• 사과나무 분양, 짚공예 체험	 ddorang.org	신개울마을 신개울체험 신개울말 신개울소식 회원가입
	산대지구	농업· 농촌 테마공원조 성 · x	농식품부	2008	50억	x	•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테마로 '작은 보은'을 설정 → 속리산 범주사 미니어처 공원 및 황토대추정원 등을 조성 중에 있음 • 각종 기반시설 정비중임					
속리산면	구병리	이름마을 가꾸기 · x	행안부	2001	12억	o	방 주방 관 영상회의실	 문화관	• 산나물 뜯기, 산딸기 행사, 구병 산 등반대회, 야생화 관찰, 메밀꽃 축제, 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등	• 천연염색, 다도체험 및 전통차 만들기, 산나물 뜯기, 농산물 수확 체험, 메밀베개 만들기, 장 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등	 sulsul.org	마을소개 마을미리보기 마을즐기기 민박안내 마을이벤트 체험·펜션예약 농특산물 마을사랑방
잔안면	서원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 o	농식품부	2007	63억	o	방(객실단위) 직거래장터 사무실 영상회의실 세미나실 샤워실	 도농교류센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단계 진행 중		 escowon.kr	서원권역 서원골장터 체험이벤트 서원골영상방 서원골대화방
회남면	분저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3	2억	o	방(단위객실) 주방/식당 영상회의실	 체험관(펜션운영)	• 고구마 캐기, 고추 따기, 물놀이 체험, 모시기 체험 등	• 물놀이 체험 • 농산물수확체험	 bjvill.co.kr	마을소개 마을주변여행 마을먹거리 마을숙박시설 마을둘러보기 마을사랑방
회인면	건천리	산촌생태 마을조성 · o	산림청	2007	14억	o	방 체험관 영상회의실 사무실	 자드락관	•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대추나무 관련 체험 다수 진행	•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대추관련 음식 만들어 먹기 등	 jaderak.co.kr	마을소개 체험안내 편의시설안내 시골장터 주변관광지 사랑방이야기
	부수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7	2억	o	안채 (주방구분, 영상회의실과 객실 겸용) 사랑채 (방)	 생태교육관	• 감따기 및 꽃감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물놀이 별자리 관찰, 숲 여행, 짚공예 체험, 미꾸라지 잡기, 목탄방아 체험, 우렁이 뿌리기 축제 등	• 감따기 및 꽃감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숲 해설가와 함께한 숲 여행, 야생화 관찰	 busuri.com	민들레마을 민들레여행 체험놀이 민들레장터 나누는민들레 민들레친구들 같이가자!보은
	귀천리	쌍안·고 석 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 x	농식품부	2002	2억	x	사업 중단				
		농촌마을 종합개발 · o	농식품부	2009	43억	o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진행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생활권의 행정리 다수를 권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표1에서 행정명은 사업신청 시 중심이 되는 마을의 행정리로 표기하였음.

표 4. 홍보전략 시행현황

홍보 전략	시행 마을
리플렛 제작	• 사업을 중단한 쌍암·고석마을을 제외한 모든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 대부분의 마을에서 구축은 하였으나, 구병아름마을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인터넷 카페 운영	• 하안민들레생태마을, 신개울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언론 홍보	• 보은군 모든 체험마을에서 활용 • 구병아름마을의 경우는 현재 방문객 과다로 인하여 언론 홍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임
DM발송	• 하안민들레생태마을
자매결연	• 보은군 모든 체험마을에서 활용
기념품 제작	• 분저실(수건 제작)

(5) 체험마을의 운영·관리 현황

① 법인 설립

체험마을의 운영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법인설립은 체험마을을 계획하는 처음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소득 분배 및 운영 등에 있어 발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시행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마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미룰수록 각종 문제의 발생소지가 크다. 또한 투명한 체험마을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은군에서는 서원권역, 자드락마을, 하안민들레생태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병아름마을의 경우 마을주민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마을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의 공동수익을 위한 법인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른 체험마을도 법인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행정이 및 전문가들도 법인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체험마을사업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주민 참여

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일이며 마을의 운영을 체계화하는 일이다.

보은군의 실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짐성촌의 경우 참여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이를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제도적 참여로 시작했더라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가치적 참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초기부터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든 주민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가치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정부주도의 사업에 익숙해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구병아름마을의 경우 오랜 시간 체험마을을 이끌어 오면서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실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원리의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집단이주한 공동체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건물만 지어놓고 체험마을이 운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그 외 체험마을의 경우 대부분 마을의 몇몇 리더에 의해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체험마을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을의 리더들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가치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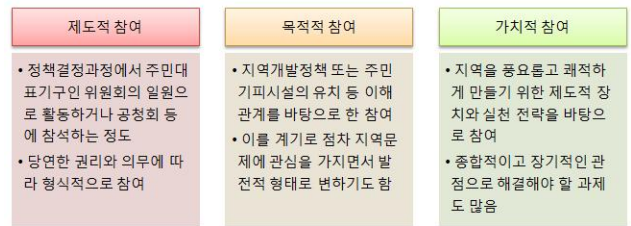


그림 3. 주민참여의 유형

③ 마을 자원의 활용

모든 체험마을에는 자연환경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사회적자원, 경제자원 등 무수한 지역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인적자원, 프로그램, 공동체자원, 지역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자원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체험마을의 운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은군은 자연환경자원이 매우 우수하다. 구병아름마을의 경우 속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구병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자연환경자원을 통해 체험마을의 입지를 다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서원권역의 경우는 99칸 주택으로 유명한 선병국 가옥을 중심으로 주변에 오래된 한옥이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문화역사자원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원계곡과 정부인소나무 등 자연경관이 수려해 체험마을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시 가장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저실은 대청호, 대원리는 휴양림, 중곡리는 동학농민

7) 농림수산식품부,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1, 2006, p.18

기념공원, 산대리는 철쭉과 사과나무, 건천리는 대추나무, 부수리는 하얀민들레, 감나무, 오장환 문학관 등 체험마을마다 고유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조건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변 마을의 자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만의 자원을 고집하는 등 자원의 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④ 마을 사무장 제도

현재 보은군에는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7개 체험마을에서 마을 사무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마을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에는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을 포함한 전국의 체험마을에서 이 의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⁸⁾이다. 보은군 7개 마을에서 실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사무장으로 채용한 사례는 대원리 여동골(녹색농촌체험), 구병리 아름마을, 서원리 서원권역으로 한정된다. 대원리의 경우도 2009년에는 외부에서 사무장이 출퇴근하였고 2010년부터 마을주민이 사무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의 리더들은 마을 사무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이유를 마을에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사업을 유치할 때 마을의 인력구성에 있어 70%이상이 노인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 및 관계자는 이미 이것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젊은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마을 내에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다른 이유로는 마을 주민들의 선입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⁹⁾ 보통 농촌에서 40대는 매우 젊은 인력에 포함된다. 그런데 귀농·귀촌자가 아닌 원주민 40대의 경우 농촌에 살고 있는 자체를 무능력하기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젊지만 절대 마을 사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외부에서 사무장을 영입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마을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사무장 제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은 현재 최

장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5년 안에 각 마을은 사무장 제도를 통해 체험마을을 활성화시켜서 자립해야 하고, 체험마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민들에게 사무장 역할을 골고루 부여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은 몇몇 리더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때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무장의 역할이 단순 업무처리(서류정리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체험마을의 실제적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통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⑤ 1촌 1전문가 제도

정부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촌 1전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마을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고 전문가 컨설팅 후 소득 증대 및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북실마을(북실권역), 서원권역, 하얀민들레생태마을에서 1촌 1전문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북실마을(북실권역), 서원권역은 농촌관광 전문가, 하얀민들레생태마을은 홍보·마케팅 전문가를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자체의 전문가 풀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4.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의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을 위해서는 마을에 존재하는 인적자원, 생산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그림 4>¹⁰⁾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생태자원을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마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마을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소득 증진을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방문객과의 교류를 통해 마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은 주민의 역량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민의 역량발굴은 지도자의 발굴로 이어지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지도자와 주민들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하며, 체험마을의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8) 2009. 05. 26~28까지 진행된 2009 체험마을 사무장과정 2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교육 참석자 45명 중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무장이 60%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 집계에는 실제 마을 주민은 아니지만 주5일을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무장(가족은 타 지역에 거주)을 마을 주민으로 포함한 집계이므로, 실제 주민이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이 예는 실제 보은군의 일부 체험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나, 마을 이름을 밝힐 경우 부정적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자 한다.

10) 농림수산식품부,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2, 2007, p.13 재구성

에 의한 효과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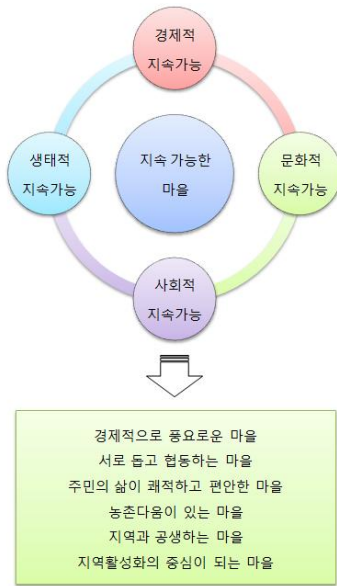


그림 4.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의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주민참여를 통해 구성된 주민조직이 형성될 때 가능하며,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생을 바라볼 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충북 보은군을 중심으로 농산촌 체험마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체험마을은 농촌의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활력이 넘치는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도시민을 유치하여 고령화 등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주도의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가꾸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리하는 등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역량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지도자 교육, 각종 특강 등의 역량강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화라는 농촌의 근본적인 현실에 부딪히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을 위해 마을가꾸기의 주체가 되는 주민, 전문가, 행정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첫째, 주민들은 공동체적 협의시스템을 구성하여 연대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

신,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몇몇 지도자에 의해 성공하길 바라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정부사업은 마을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는 단순 기획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과 법제도 속에 있는 행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현가능한 농촌마을 가꾸기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주민과 행정사이에서 전문가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빨리 찾아야 한다.

셋째, 행정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와 주민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모임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전문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전달함에 있어 경제적 지표보다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우선 전달해야 하며, 그것들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수반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거주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마을 가꾸기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향후 농촌에서의 삶을 권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체험마을은 농촌다움을 지닌 생활공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활용할 때 농촌마을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농촌은 이제 생산 공간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1, 2006
2. 농림수산식품부,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2, 2007
3. 박현춘, 농촌경관과 지역성을 고려한 마을 계획, 충북대 석사논문, 2008
4. 한국농촌건축학회, 대원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007
5. 농어촌 포털사이드 웰촌 홈페이지 <http://www.welchon.com>
6. 보은군 홈페이지 <http://www.boeun.go.kr>
7. 보은관광 홈페이지 <http://www.tourboeun.go.kr>
8. 보은군 체험마을 홈페이지

(집수 : 2010.10.10, 심사완료 : 2010.11.02)